

韓國老年學研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000, Vol. 9, 89-106

노년기 부부갈등에 관한 고찰

김 경 신 · 이 선 미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요약) 노년기는 건강수준의 저하, 가족관계의 변화, 은퇴로 인한 수입 감소, 역할상실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생활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인데, 노년기 부부들의 관계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의 자원 분배나 권력의 역동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년기 부부의 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갈등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또 노년기 부부의 갈등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 소득, 성 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자아분화수준, 가사노동분담, 권력, 의사소통, 여가공유, 자녀와의 관계 등 다양한 변인들의 효과를 개괄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부부의 갈등에 관한 연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Key Words: 갈등이론, 노년기, 부부갈등, 성 역할]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김경신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e-mail주소는kks@chonnam.chonnam.ac.kr입니다.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제도의 발생은 가족의 구성원들 중에서도 노인들에게 변화에 대한 적응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노인부양의 문제를 비롯하여 노인의 지위 저하나 역할 상실 등의 문제를 더욱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변모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 노인인구의 비율은 1960년에는 2.9% 그리고 1995년에는 5.9%이었지만, 2000년 중반에는 7%를 넘었으며 또 2020년에는 14%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1999). 의료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인구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곧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들의 빈도나 비율이 높아진다는 의미도 된다.

갈등이란 어떠한 인간관계에서든지 존재한다. 따라서 부부간에도 갈등의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 부부사이가 원만한 경우나 그렇지 못한 경우 모두 갈등이 발생한다. 즉,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안정을 충족시켜주면서 애정을 기초로 한 합의, 균형, 조화를 이루는 장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헤어날 수 못하는 부부들의 경우에는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존속하고 있는 장이다 (변화순, 1997). 따라서 부부 갈등에서 중요한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의 해결방안이다. 특히 노년기는 신체적, 생리적인 감퇴로 인한 건강수준의 저하, 자녀의 출가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사회활동에서의 은퇴로 인한 수입 감소 및 역할 변화 등을 경험하므로 전반적인 생활의 재조정을 해야하는데, 부부간의 조화도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입장으로 이분할 수 있다. 전자의 예를 들면, 노년기 부부의 적응능력은 젊은이들에 비해 더 향상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긍정적인 변화는 자녀들이 막 집을 다 떠난 시점에서 가장 급격히 나타나서 그 이후에는 약간 누그러지는 듯한 경향이 있다고 주장이다 (손승영, 1997). 후자의 예로는, 노년기는 은퇴로 인해 주된 생활장소가 남녀 모두 가정으로 바뀌며, 부부가 하루 24시간을 함께 있게 됨으로 부부간 접촉이 증가하고, 사회와 직업을 중요

노년기 부부갈등에 관한 고찰

시 여기면서 생활해 온 남성들이 가정생활에 깊이 관여하면서 관계의 심화를 가져오거나, 강요된 친밀감에서 오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태현, 1998; 이신숙, 1997).

지금까지 노인 문제를 다루는 연구주제들은 주로 노인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문제 (김정희, 1996; 박경란, 1993; 윤현희 · 김명자, 1994; 이인정, 1994; 주성수 · 윤숙례, 1993; Krause, 1991), 노부모 부양 (김명자 · 안선영 · 한정화, 1996; 민무숙, 1995; 이신숙, 1994; 이윤정, 1995; Dwyer, Lee & Jankowski, 1994),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갈등 (신일진 · 김태현, 1991; 조경자 · 한동희 · 조은희, 1996; 최정혜, 1992) 등이었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노인부부의 비율 증가는 부부의 관점에서 노인들을 연구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미흡하지만 최근 노인 부부에 대한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 (김재엽, 1998; 김재엽 · 김동배 · 최선희, 1998; 김태현 · 전길양, 1997; 전길양 · 임선영, 1998).

특히 노년기 부부관계는 여러 가지 변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된 노년기 부부에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갈등이론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고찰하여 노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갈등이론과 노년기 부부갈등, 노년기 부부갈등에 관련된 변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노년기 부부갈등

갈등이론과 부부관계

갈등은 관심이나 생각의 불일치 또는 대립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대립이나 불일치는 개인이나 집단간에 발생한다 (Klein & White, 1996; Sprey, 1979). 현대의 갈등이론은 크게 변증법 이론과 구조기능 이론으로 이분된다. 변증법적 갈등이론은 Marx와 Weber 등이 그 주창자로 갈등을 거시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는 반면, 구조기능 갈등이론은 Gimmel이 주장한 것으로 갈등을 인간의 사회적 상호

작용과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

Marx는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급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자원이 풍부할 경우 사람들이 자기만족을 위해 행동하더라도 갈등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계급에 따라서 소유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급간의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 한편 Weber는 권력에 따라서 갈등의 인식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저항과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하는 힘의 움직임이 있는 권력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Klein & White, 1996).

Marx나 Weber와는 달리 Gimmel은 개인의 행동이나 상호작용과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 갈등을 분석하였다 (Klein & White, 1996). 그에 의하면, 갈등은 상호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의 한 형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집단이든지 존재하기 마련이다. 갈등이란 흔히 미움이나 질투, 욕구, 욕망과 같은 사회적 억압을 깨는 요인들 때문에 발생하지만, Gimmel은 어떤 사회체계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집단의식이 강화되고 집단 일체감이 확립되어 오히려 집단간의 경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환, 1992).

갈등은 Marx 이후 주로 철학적 관점에서 논의되었지만, 최근에는 가족연구에도 그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다 (Klein & White, 1996). 즉 억압과 강제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에서는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의 연구에서도 억압이나 권력,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한 가족성원들간의 이해관계를 탐색할 때에도 갈등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다 (김양희, 1993). 자원과 권력의 관계를 보면, 자원은 사회체계에서 구성원의 권력, 연령, 성 등에 따라 다르게 배분된다. 결과적으로 가족의 한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보다 더 많은 자원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자원불공평성은 갈등을 초래하여 가족구성원들도 협동보다는 경쟁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부인이 남편보다 돈이나 권력을 더 적게 가지고 있다면 다른 자원으로 이를 대체하려고 노력한다 (Klein & White, 1996).

Sprey(1979)는 가족구조를 사회계급으로 보지 않으면서 갈등이론을 가족 연구에 적용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즉 가족은 한 계급(예, 남편)이 다른 계급(예, 부인)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계급사회의 축소판

노년기 부부갈등에 관한 고찰

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족구성원들은 경쟁적인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가족과 같은 사회적 집단은 집단의 구조상 경쟁구조로 인하여 개인 내 갈등과 개인간 갈등이 발생하므로 갈등의 정도는 집단의 구조(구성원, 연령, 성)와 상황의 구조(경쟁과 협동)하에 포함되는 변인들과 관련된다 (Klein & White, 1996).

갈등이론을 토대로 가족관계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갈등을 야기하는 변인 및 그 영향의 탐색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부부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성차별주의에 의하여 권력이나 역할 갈등 등이 야기된 경쟁적인 관계이며, 또 가족관계 중에서 가장 중심적이면서 가장 문제시될 수 있는 갈등구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노년기는 빈약한 자원 속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복합적 갈등구조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부부간의 관계를 재조정해야하는 시기이다. 자원과 권력의 역동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노년기 부부갈등을 매개하는 변인들은 매우 다양할 것이며, 이러한 변인들의 체계적인 탐색은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방안마련에 필수적일 것이다.

노년기 부부갈등의 특성

일반적 경향. 최근 노부부들도 평균수명의 연장과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하여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이에 따라 노년기의 행복이나 삶의 질은 배우자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과 동시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의 양은 부부마다 다르고 또 부부가 경험하는 갈등의 종류도 결혼생활 단계마다 달라진다 (김양희 · 이형실, 1997). 예를 들면, 젊은 부부들은 가사 분담이나 집안의 중대사의 결정 때문에 갈등을 경험한 반면, 자녀가 집을 떠나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시점의 중년기 부부들은 새로운 친밀성을 요구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재분배 필요성에 따른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최근의 노부부는 과거보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데다가 노년기 이전에 해결되지 못했던 갈등이 다시 표출되면서 두 사람

의 관계가 악화되어 서로 고립된 생활을 영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길양·임선영, 1998; Atchley, 1994). 또 배우자의 은퇴로 인한 접촉의 증가는 노부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또 강요된 친밀감에서 오는 갈등이 초래될 수 있는데 (김자혜, 1997), 한정된 자원의 배분과 협동의 과정에서 마찰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렇지만 노년기에 이르는 오랜 공동생활동안 나름대로 갈등의 회피 혹은 해결방법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노부부의 갈등구조는 표면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노년기 부부갈등이나 우울증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노부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의 평균점수는 보통이하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부부가 함께 오랜 기간 살아오는 동안 고정된 역할에 순응하면서 갈등해소에 별다른 의지를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또 그들의 갈등이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는 성격이나 의사소통, 재정 문제 등이 드러났다 (김재엽 등, 1998; 전길양·임선영, 1998). 결혼생활을 통해서 답습되어온 노년기 부부갈등은 폭력의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 나라 노인부부의 폭력실태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전체 노인부부의 약 21%가 지난 1년간 부부폭력, 즉 아내구타를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재엽, 1998).

갈등의 유형. 노부부가 경험하는 갈등의 영역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길양·임선영(1998)은 성격, 경제, 의사소통, 성, 그리고 자녀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구분한 반면, 김재엽 등(1998)은 가사영역에 대한 노부부의 갈등을 생활비 관리, 청소 및 요리, 자녀문제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또 김재경(1992)은 형성기 및 확대기 가정을 중심으로 부부갈등을 연구할 때 이를 부부관계, 인척관계, 의사소통, 재정관리문제, 가사노동분담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 부부문제의 주체를 토대로 분류할 경우 부부문제는 부부 각각의 개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개인문제, 부부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부내부문제, 그리고 부부 두 사람 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부외부문제로 구분되기도 한다 (노치영, 1995). 한편 기존의 부부갈등에 대한

노년기 부부갈등에 관한 고찰

연구들을 정리한 이경희(1998)에 의하면, 부부갈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개인적 특성, 부부관계의 특성, 공동생활특성 영역, 제삼자특성 등으로 구분되었다. 즉, 배우자 각자의 성격이나 생활습관, 사고방식, 성격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부부갈등은 개인특성, 부부간의 의사소통, 애정, 성,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부갈등은 부부관계특성,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주거, 주택계획, 금전관리, 소비, 여가생활, 가사노동분담에서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갈등은 공동생활특성, 그리고 제삼자특성영역은 자녀의 훈육이나 교육, 친·인척, 직장이나 사회활동 등 부부 두 사람이외의 관계들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갈등을 제삼자특성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갈등의 대처. 부부간에 발생한 갈등문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개선되거나 악화될 수도 있다. 부부가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면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서로 회피 또는 파괴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Christen & Heavey, 1990; Gottman, 1993). 부부갈등의 대처 행동은 문제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상 생활에서 겪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전략으로 대처하는 한편, 건강을 해치는 등의 위협적인 문제 상황에서는 회피와 같은 소극적 전략을 회피를 사용하거나 장기적인 문제상황에서는 종교에 의존해버리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attlin, Wethington, & Kessler, 1992).

한국 부부들이 문제행동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기혼남성의 경우 긍정적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형, 회피적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회피형, 부정적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파괴형, 그리고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어떠한 시도도 적게 하는 수동형으로 분류되는 반면, 기혼여성의 경우 회피형, 회피와 부정적 행동을 가장 적게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긍정적 특성이 나타나는 수동형, 여러 가지 행동들을 시도하는 다양형, 그리고 파괴형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기혼남성들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각할수록 파괴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건설적 혹은 수동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또 스스로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할 때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완력을 이용하였다. 또 기혼여성들도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다양형만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각하는 편이었다 (노치영, 1995).

노인들은 부부간의 갈등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배우자의 죽음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뛰다던가, 소화불량, 두통 등의 신체 증상뿐 아니라 울화병, 분노나 배신감, 죄책감, 외로움 등의 정신적인 고통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인들은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때 주로 감정적인 조절을 하거나 체념이나 포기를 해버리는 경향이 높았다 (김태현 · 김미혜 · 이영자 · 김애순, 1998). 또 노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나라 노인들이 가장 쉽게 취하는 갈등의 해결방법은 ‘아내가 참는다’는 반응이었다 (변화순, 1997). 따라서 우리 나라 노인 부부들의 경우 아직도 여성이 갈등구조의 궁극적 책임자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년기 부부갈등에 관련된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노년기 부부갈등에 관련된 변인들은 갈등이론의 관점에서 자원의 분배나 권력관계와 밀접한 관련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부부갈등 구조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변인은 성별인데, 이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식구조를 지닌 우리 나라 부부들의 권력투쟁관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연령도 역시 부부간의 권력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자원 변인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그밖에도 학력이나 건강, 소득수준 등도 대표적인 자원변인이 되고 있다.

성별. 부부간의 갈등을 지각하는데 남녀간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지만 (김재엽 등, 1998), 성별에 따른 갈등의 차이를 보고한 경우가 더 흔하다. 일반적으로 부부간에도 남성보다 여성이 성이나 성격과 같은 문제로 갈등을 더 심하게 지각하는 편인데, 이는 노부부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변화순, 1997; 전길양 · 임선영, 1998). 노

노년기 부부갈등에 관한 고찰

인들에게서 보이는 성별에 따른 갈등지각의 차이는 가부장적 권력자로서의 남성의 우월한 지위구조와 이에 대한 여성 노인의 저항적 의식구조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이성적으로 갈등을 대처하려는 남성들의 양상과 방어자적으로 대처하려는 여성들의 양상과 관련이 높다 (노치영, 1994).

연령. 부부가 갈등을 경험할 때 그들의 연령에 따라서 갈등을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이나 또 이를 대처하는 양식이 약간씩 다르다. 예를 들면, 노인들도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성에 대한 문제로 그리고 나이가 더 들수록 성격 문제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전길양·임선영, 1998),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갈등대처행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말희, 1990). 또 갈등으로 인한 부부간의 폭력행사에 있어서도 연령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다른데, 나이가 든 남성노인일수록 아내구타에 대한 비율이 낮아지는 편이었다 (김재엽, 1998).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소득이나 생활수준과 관계가 매우 높은 편인데, 교육수준이 높아 많은 자원을 소유한 사람은 부부관계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통해 관계나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자원을 많이 가지게 된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도록 적절히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부부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갈등의 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김재엽 등, 1998),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부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의사소통을 지양하는 대신 서로 능동적인 의사소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경, 1992; 전길양·임선영, 1998).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육수준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나 사회적 기술 등이 다르다 (Lazarus & Folkman, 1984). 그렇다면 갈등을 해결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논리적 설득 등 갈등의 관리를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었다 (송말희, 1990). 그렇다면 교육수준이 별로 높지 않은 우리 나라 현재의 노인들의 갈등 수준이나 대처방식은 미래의 노인들보다 수준이 더 높고, 긍정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 건강은 개인의 행동의 방향이나 정도를 좌우하는 기본적인 자원이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분배할 자원이 줄어들게 되어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로 인하여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집단은 부부갈등을 더 높게 그리고 노인들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결혼적응이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윤 영, 1990; 전길양 · 임선영, 1998).

소득.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은 생활의 주요한 자원이면서 권력의 수단이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유한 자원의 양이 적기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김재경, 1992; 변화순, 1997; 이미영 · 박혜인, 1995). 또 소득수준은 갈등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갈등의 대처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노년기에 해당된 부부들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부부간의 갈등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재엽, 1998; 김재엽 등, 1998). 그 이유는 은퇴 이후 노년기에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안정이나 정착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서 부부간에 자원으로서의 의미가 약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심리적 변인

최근의 부부갈등 연구들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보다도 심리적 변인이나 이에 관계되는 다른 변인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부부역할을 규정하는 성 역할 태도인데, 부부간에 보이는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자아존중감도 역시 노년기의 독립적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인데, 부부간의 적응이나 및 갈등의 정도를 규정한다.

성 역할 태도. 전통적 성 역할에 의한 부부의 역할구분은 결혼초기의 부부들에게는 보편적이었다. 그렇지만 노년기에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역할 구분이 달라지게 된다. 특히 소득이라는 자원과 가부장이라는 권위를 내세워 강압적 우위에 있었던 남편은 은퇴를 하면서 수입 감소와 심리적 자원의 축소로 자연스럽게 성 역할 태도 변화를 수용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부인과의 대립은 자연히 부부 갈등으로 연결되게 된다.

노년기 부부갈등에 관한 고찰

곧 나이가 들면서 남성노인은 수동성을 보이고, 주위환경의 변화에 대해 적응하기 시작하고, 부양과 애착을 더욱 필요로 하는 반면, 여성노인은 더욱 공격적이고 활동적으로 되며 그 자신의 신체적 요구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변화순, 1999). 그렇지만 노인들이 보인 성 역할 태도가 진보적일수록 부부간의 적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신숙, 1997).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부부관계 혹은 가족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에너지이다. 따라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자아존중감이 높아야 하는데 (이경희, 1998), 노년기는 여러 가지 자원의 축소로 자아존중감의 감소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렇지만 노년기에 들어와 새로운 인성이 구축되면 오히려 독립적 자존감을 유지해 나갈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부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는 그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아분화수준. 자아분화수준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본능적 경향인 감정적 기능을 지적 기능과 어느 정도 잘 구분시킬 수 있는가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자아분화를 잘 시키는 사람은 스트레스나 갈등을 맞이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고서 대인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데, 역시 부부간에도 잘못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경희, 1998). 다시 말하면,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적고 부부적응도가 높은 반면, 자아분화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크며 부부적응도가 낮은 편이었다 (고현선, 1994).

관계적 변인

가사노동분담. 가사노동의 분담문제는 가족 구성원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중의 하나이다. 부인은 남편이 가사노동에 함께 참여해주길 그렇지 못할 경우 부부갈등이 유발되며, 또 남편이 마지못하여 가사노동에 참여하더라도 그 갈등은 사라지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남성들도 은퇴 이후 가사노동에 참여하게 될 시간적 여유가 증대하게 된

다. 과거에 비해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남성들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부분에서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김태현 · 전길양, 1997; Atchley, 1994; Lee & Shehan, 1989).

권력 유형. 부부간에 유지되는 권력의 방향이나 크기는 갈등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가부장제를 고수했던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남편의 권력소유를 당연시했는데, 사실상 부부의 권력유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부부간의 갈등의 차이는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남성우위형의 노부부가 갈등수준이 가장 높고, 평등형인 노부부의 갈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엽 등, 1998).

의사소통. 부부간의 상호작용에서 가장 주요한 수단은 의사소통이다. 그러므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의사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할 수 있다. 또 의사소통의 방법이나 기술 등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는데, 노부부간에도 갈등해소는 의사소통방법이 매우 효율적이다.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들이 그렇지 못한 부부들에 비하여 결혼만족도가 더 높으며 또 부부갈등의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혜경, 1996).

여가 공유. 핵가족제도에서는 부부중심으로 시간을 공유하게 된다. 특히 자녀들이 성장하여 출가한 이후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기간은 남편과 부인만이 시간을 공유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년기 부부가 여가를 공유하는 정도는 부부관계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여가가 부부관계를 더욱 가깝고 조화롭게 해주어 그들의 인격과 상호관계 발달에 공헌할 수 있게 하면서 아울러 갈등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혜경, 1996). 그렇지만 노부부가 여가를 공유할수록 갈등이 생기는 것보다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등 긍정적인 면만을 찾아볼 수 있었다 (김혜경, 1996; 김태현 · 전길양, 1997; 전길양 · 임선영, 1998).

자녀와의 관계. 노년기에 자녀들로부터 받는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자녀로부터의 정신적 지원이 더 강력한 권력자원의 기능을 한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자녀들로 어느 정도 정신적

노년기 부부갈등에 관한 고찰

지원을 받는가에 따라서 노년기 부부갈등을 매개해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녀와의 접촉이 적은 노부부일수록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와 반대로 자녀들과 별로 접촉하지 못한 노인들은 부부간의 적응이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어 결국 부부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승영, 1994; 전길양·임선영, 1998).

논 의

자녀들이 출가 또는 독립하여 ‘빈 둥우리 시기’(empty nest period)를 맞이한 이후부터 성인기에서도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노년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지 않을 경우 거의 대부분 부부만이 살아가게 된다. 노년기에 이르는 동안 부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서로 여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따라서 부부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 본고에서는 노년기 부부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갈등의 요소 그리고 그러한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노년기 부부의 갈등의 연구들은 곧 노부부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찾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었다. 노년기 부부갈등에 관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노인들은 전형적인 가부장제도하에서 생활해온 부부들이므로 그들에게는 자원분배나 권력의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유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부부들과는 다른 갈등양상을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순종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온 오늘날의 노인 여성들은 실제로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소극적 대처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현재의 노인 여성들이 취하고 있는 철회나 회피와 같은 대처방법은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노년기 부부갈등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노년기는 소득이나 학력 등 개인적 자원이 고정되거나 감소되어 가지만, 심리적 변인이나 관계적 변인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그들의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특성 및 관계적 변인에 대한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들의 갈등

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부부를 표본의 쌍으로 선택하여 연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실시된 노부부의 갈등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연구는 부인이나 남편의 일방적 응답을 토대로 갈등내용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어느 일방에 의한 것이 아닌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중 어느 한쪽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진정한 노부부의 갈등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노부부를 표본의 쌍으로 하는 다차원적인 변인이 포함된 종합적 차원에서 노부부의 갈등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노년기 부부의 권력관계의 변화는 가족주기의 전반적인 흐름과 더불어 검토되어야 하지만, 단순히 횡적인 연구 결과만을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녀와의 관계, 태도나 가치관의 변화, 역할변화, 일상생활 유형의 변화 등이 자원이나 권력관계와 어떠한 상호맥락을 형성하는지 등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노년기 부부갈등의 특성이 명확해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장·중년기 부부관계의 연속선으로서 노년기 부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석 틀에 의한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현선 (1994). *부부의 자아분화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 · 안선영 · 한정화 (1996). 신세대와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 및 보상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 (2), 97-110.
- 김양희 (1993). 가족학 연구와 갈등이론적 접근.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가족학 연구의 이론적 접근: 미시이론을 중심으로* (pp. 113-152). 서울: 교문사.
- 김양희 · 이형실 (1997). *결혼과 가족*.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김자혜 (1997). 노부부 독립가구의 형성과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pp. 293-324).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노년기 부부갈등에 관한 고찰

- 김재경 (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형성기 가정과 확대기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 (1998). 한국노인부부의 부부폭력실태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 *한국노년학*, 18 (1), 170-183.
- 김재엽 · 김동배 · 최선희 (1998). 노인부부의 스트레스와 갈등, 우울증, 그리고 권력. *한국노년학*, 18 (3), 103-122.
- 김정희 (1996). 한국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사회인구요인. *한국노년학*, 16 (2), 120-136.
- 김태현 (1998). *노년학*. 서울: 교문사.
- 김태현 · 김미혜 · 이영자 · 김애순 (1998).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 (1), 150-169.
- 김태현 · 전길양 (1997). 노년기 부부의 상호간 지지와 역할공유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 (2), 167-182.
- 김혜경 (1996). *노년기 부부관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치영 (1995). *한국 부부의 부부문제해결과정: 자아상태, 문제인지, 문제해결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무숙 (1995). 노모와 성인딸 / 며느리간의 상호원조유형이 부양부담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 (1), 74-90.
- 박경란 (1993). 말며느리가 인지하는 시모 부양긴장: 결정요인 및 매개변인 고찰. *한국노년학*, 13 (1), 75-89.
- 박재환 (1992). *사회갈등과 이데올로기*. 서울: 나남.
- 변화순 (1997). 부부간의 갈등과 해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pp. 217-253).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손승영 (1997). 노부부의 가족구성 및 가족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pp. 255-292).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송말희 (1990). 기혼 남녀의 부부간 갈등정도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 (2), 31-47.

- 신일진 · 김태현 (1991).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 (1), 27-44.
- 윤 영 (1990). 노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현희 · 김명자 (1994). 남녀노인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적응감 연구. *한국노년학*, 14 (1), 17-32.
- 이경희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영 · 박혜인 (1995). 전화상담사례에 나타난 부부갈등문제와 대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3 (1), 141-154.
- 이신숙 (1994). 기혼여성의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신숙 (1997). 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 (2), 70-85.
- 이윤정 (1995).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분담정도와 부양에 따른 부담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정 (1994). 노년기의 삶의 사건들, 사회적지지와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학*, 23, 199-223.
- 전길양 · 임선영 (1998). 노년기 부부갈등과 우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 (6), 1-12.
- 조경자 · 한동희 · 조은희 (1996). 노부모와 기혼자녀의 동거관계에서 발생하는 세대간 갈등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 (6), 261-273.
- 주성수 · 윤숙례 (1993). 노부부와 홀로 사는 노인들간의 일반 건강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13 (1), 55-62.
- 최정혜 (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1996). *인구동태통계연보*. 서울: 통계청.
- Atchley, R. (1994).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Belmont, CA: Wadsworth Publishers.
- Christen, A., & Heavey, C. (1990). Gender and Social structure in

- the demand and withdraw pattern of marital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73-81.
- Dwyer, J., Lee, G., & Jankowski, T. (1994). Reciprocity, elder satisfaction and caregiver stress: The exchange of aid in the family caregiving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35-43.
- Gottman, J. (1993). The roles of conflict engagement, escalation, and avoidance in marital interaction: A longitudinal view of five types of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6-15.
- Klein, D., & White, J. (1996). *Family theories - An introduction*. London: Sage.
- Krause, N. (1991). Stressful event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men and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6, S84-92.
- Lazarus, R.,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e, G., & Shehan, C. (1989). Retire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4, S226-230.
- Mattlin, J., Wethington, E., & Kessler, R. (1992). Situational determinants of coping and coping effectiven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 103-122.
- Sprey, J. (1979). Conflict theory and the study of marriage and the family. In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Research-based theories*, Vol. 1 (pp. 130-159). New York: The Free Press.

**A review on the marital conflict and its related
variables in the elderly couples**

Kyeong-Shin Kim · Seon-Mi Lee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500-757

This article was to review the marital conflict of the elderly couples from the viewpoints of conflict theory. At the same time, types of the marital conflict, coping behaviors, and related variables were reviewed. The variables sex, age, education, health, income, attitudes toward sex role, self-esteem, differentiation of the self, division of labor, power relations between couples, communication style, the joint leisure pattern, relationships between elderly parents and their siblings were revealed as significant variables explaining the levels, types, or coping strategies of the marital conflict of the elderly couples.

(논문접수일: 2000년 9월 26일)

(수정논문접수일: 2000년 11월 2일)

(논문게재승인일: 2000년 11월 13일)